# 도심 천년도량 지키기 '국가의무'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찰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가 지난 9월 21일 대웅전에서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아셈 초고층 빌딩신축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천년간 명맥을 이어온 문화유적공간을 지키기 위해 아셈 행사장의 건립계획이 부분 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세미나가 21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1백여명의 신도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봉은사 수행공간과 아셈행사장 건립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봉은사 사찰환경 보존 세미나 지상중계

## 완공땐 교통난·소음·대기오염 최악상황

## 사찰환경권 법제화로 역사현장 보존을

단 이들간의 행사를 위해 천년문화유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천년을 살아가야 하는 후손들이 결정할 몫이라는 것이다.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셈은 세계 35개국 정상이 모이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국제 행사이다. 국가이익과 문화유산보존이 충돌한 아셈 초고층빌딩신축,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성관스님(조계종 문사부장)**

최근 조계종에서 접수된 '개발에 의한 사찰환경 파괴'는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기업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그곳에 사찰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인연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조상들이 세우고 일궈놓은 우리문화를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연친화적인 발상의 전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찰환경파괴는 단순히 당해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사찰환경권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임삼진(녹색교통운동연 처장)**

삼성동지역은 러시아워와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상습정체구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여기에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예상하게 한다. 이 지역은 4단계 신호체계가 운영되는 곳으로 교통량이 2배로 늘어날 때 정체와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체증은 70~80%에 이른다. 공기오염 및 소음 등의 공해유발은 2배 이상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지역전체를 보지못하는 맹점이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유산 보존은 세계적 경향이다. 봉은사는 그 자체가 서울시의 중요한 보물로 이곳에 초고층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다.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이영경(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아셈건물이 완공되면 경관이 변화되는 동시에 건물기능에 부합되는 새로운 활동이 도입된다. 공식행사와 회의, 전시회등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호텔영업과 백화점의 부대영업행위로 대규모 차량이동과 인구이동이 수반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시각적 환경을 점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과 변화로 '봉은사로'라는 도로가 '컨벤션로'로 바뀔 수도 있다.

봉은사가 당면하는 사찰환경 훼손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유적의 보전 관리방법의 허술함에서 비롯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문화역사 공간영역의 설정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차재윤(아셈사업단 관리본부장)**

무협은 수출과 무역진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없는 전시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도 전시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2천년대는 3~4배의 전시수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아셈행사장 건립이 요구된다.

봉은사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일주문앞은 녹지화하고 사무동을 2동에서 1동으로 축소하며 호텔도 27층으로 낮출 계획이다.

**길기석(강남구청 도시정비국장)**

아셈행사장 건축관련 주민의사 수렴을 마쳤다. 서울시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강남구가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나 봉은사와 무협의 환경침해, 공해문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봉은사는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근린공원구역이어서 안타깝다.

**김선희(국토개발연구원)**

오늘의 문제는 수행도량 봉은사를 살리고 아셈대회를 무난하게 치루는데 있다. 고층건물이 수행도량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건축공사시의 폐기물, 진동, 소음도 문제이고 대회 이후의 교통과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대안으로 현규모에서 1/2~1/3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준엽 기자

## 불교교육정책협 '불교 교육제도' 공개토론회

## 성직자 양성제 다종교 현실 무시 '위헌'

### 서구학제 무조건 도입 '개신교 위주 행정'

### 전통강원에 현대교과과정 도입 바람직

지난 9월 19일 한국불교교육정책협회(회장 한상범)가 세종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교교육제도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개신교의 전통방식인 대학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성직자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서양의 개인주의 교육이념을 심는 문화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미국식 학제가 여과없이 도입된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프로그램이 개인의 행동 결단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는 서양의 개인주의 인간화교육으로 서양사람의 정신을 심고 있다는 현실 우려의 소리다.

이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식 학제개편을 무리하게 시도하다보니 역사교육배제론과 여러가지 불교계와도 교육정책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하는 역사바로세우기운동과 전면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방안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 신설과 사립 중·고교에 종교과목 개설을 발표하여 위헌성 시비와 함께 불교계에 백지화 약속까지 한 사안이 기존의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중인 가운데 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불교교육정책과 대응을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는 헌법이나 법윤리를 바르게 지켜야 하는 국가가 각 종교 종단 교파의 교리에 따라 성직자를 양성해온 것을 국가 주도하에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발상자체가 국교제도를 인정치않는 헌법에 정면배치되는 문제의 사안이다. 그런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가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교전문대학원에서 단설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윤이흠 서울대교수는 "개신교의 전통인 대학제도로 성직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문화정책이다"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교육정책 무대책을 반성하고 역대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극복하여 현대적인 불교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그 방안은 강원을 일반 대학 형태로 개편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사회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강했다.

또 종교문화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연구 계획을 통한 미래 불교교육 마스터플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것은 불교적 특성을 지닌 교육을 실시해야만 불교의 성장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불교교육정책이 연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우 기자

## 시 론

# '동족상잔' 언제 끝날까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무장간첩사건이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침투목적에서 행태에 이르기까지 아직껏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침투 목적이 무엇이고 사건의 경위가 어쨌든간에, 이것은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의 빗나간 상황인식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잔뜩 움츠려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 북한의 빗나간 상황인식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흥분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정부내의 대북강경론자들을 부추기고, 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보수화 분위기와 맞물려서, 대북정책의 강경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선택 폭을 더욱 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된다.

김 희 오
〈동국대 교수·국제관계학〉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방향을 잃은 채 갈팡질팡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올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북한의 안정을 원하며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매우 유연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노린 강수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기치 않은 잠수함의 좌초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도된 무력행위가 그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북한내부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 내부에 대남강경론을 주장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강경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표현하면, 부분적이나마 대외개방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내부의 테크노크랫(technocrat)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붕괴 이후,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은 몸부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애써왔다. '두개의 조선책동'이라며 극구 반대해 오던 UN동시가입을 받아들였으며,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했고, 나진·선봉경제특구 설치와 같은 부분적이나마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제적인 테러국의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 북한내 테크노크랫 중심의 온건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생각처럼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수교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도 더 이상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외자유치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처럼 온건노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온건파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져 왔다. 이에 따른 위기의식과 절망감은 결국 북한내에서 강경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정부가 추구해온 일련의 대북강경정책과 대북봉쇄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배제정책을 추구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대북정책 일관성 절실

남북한 모두 강경론이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결국 한반도는 긴장에 휩싸이고 남북한간의 충돌만이 되풀이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흥분을 가라 앉히자. 북한의 대남강경책에 대한 물샐틈없는 수비책을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아래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족을 사고하고,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자. 이같은 예지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생활속의 불교 ⑨①**

# 천하의 명의가 지어준 양약이 싫다면

종합병원의 로비는 언제나 발디딜 틈 없이 붐빈다. 늘 환자들로 그득하다.

유명한 전문의의 특진실은 몇개월씩 순서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 문턱을 넘어 볼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아픈 몸을 보이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항상 쇄도하기 때문이다.

병 있는 사람은 양의(良醫)를 갈망한다. 그 분들의 진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단 몇 分의 진찰일지라도 2, 3개월쯤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요 보기드문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면 千金을 마다하지 않는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구할 수 있음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기며 거금을 던지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는 아무런 임상결과가 없는 경우라도 단지 몸에 좋다는 말만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反문명적인 짓 -잔혹한 살생, 비위생적인 짓도 서슴지 않는다. 참으로 지극한 발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 마음의 보약에 대해서는 전혀 판이한 태도를 보인다.

가령 누가 자신의 지나친 욕심,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자. 그러면 십중 팔구는 화를 내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심하면 반격을 가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원수같은 사이가 되기도 한다.

몸의 병은 한시라도 빨리 의사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의 병은 혹시 남이 눈치라도 챌 양이면 고마와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고 얼굴을 붉힌다.

눈 밝은 사람이 있어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것처럼 행운으로 여겨야할텐데 대부분은 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음에 유용한 양식이 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몸에 좋다고 하면, 정력제요 강장제라고 하면, 뱀 쓸개 곰 발바닥 지렁이 개구리 굼벵이 따위도 입에 털어 넣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가르침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다. 하물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기란 아주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육체가 마음보다 더 중요한가. 육체가 나의 대부분이고 마음은 거기에 비하면 한 모퉁이 정도의 중요성 밖에는 없다는 것인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을 애지중지 보물단지 다루듯이 다듬고 장식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이 마음보다 분명 소중해 보인다. 그러기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육신의 병을 더 안타까워하고 육신의 약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육신의 병만이 병은 아니며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이고 마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은 병든 자아이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이란 단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곧 치유될 수 있는 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보다 몸에 더 비중을 두는 습성에 젖어 있는 한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의와 양약이 더 소중한 것이다.

부처님은 천하의 명의이시고 불법은 더할 나위 없는 양약이다. 내 알몸을 의사에게 보이기를 앞 다투지 말고 부처님의 진찰 부처님의 처방전으로 건강한 자아가 되자

협찬 : 김 정 희